

기술과 예술의 조화, 피겨스케이팅

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1908 하계올림픽서 첫 등장...1924년 동계 종목 채택

차가운 얼음 위에서 뜨거운 감정을 토해내는 스포츠, 피겨스케이팅은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린다.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기술은 예술이 된다. 정교하게 날을 사용해 점프, 스핀, 스텝 연기를 펼치면, 그 위로 음악 해석, 안무, 표현 등 미적 요소가 더해진다.

빙판 위에 문양(figure)을 그리는 놀이였던 피겨스케이팅은 1860년대 '현대 피겨의 아버지'라 불리는 잭슨 하인스(미국)가 발레·음악을 접목하면서 현대 스포츠로서 기초를 확립했다.

1891년에 유럽피겨선수권대회가 처음 열렸고, 세계피겨선수권대회는 5년 후인 1896년 처음 개최됐다. 현재 각종 피겨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1892년 설립됐다.

올림픽 무대에는 지난 1908년 처음 등장했다. 시작은 하계올림픽이었다. 그리고 피겨는 올림픽 첫 등장 이후 16년이 지난 뒤 제1회 동계올림픽인 1924 샤모니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초창기만 해도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피겨는 1906년 처음으로 여성들에게도 그 문을 열었다. 이어 1908년엔 남녀가 함께하는 페어스케이팅이, 아이스댄스는 1952년에서야 생겨났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선 남녀 싱글스케이팅, 페어스케이팅, 아이스댄스, 그리고 단체전이 열린다. 단체전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치러졌다.

단체전인 팀 이벤트는 남녀 싱글, 페어, 아이스댄스 등 세부 4개 종목 중 3개 이상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국가 가운데 주요 국제대회 합산 성적이 상위 10

'4회전 시대' 도래... 퀴드러플 악셀 구사하는 선수도

차준환·김현겸·신지아·이해인·임해나·권에 밀라노 출격

개국인 국가만 출전할 수 있다.

한국 피겨 대표팀은 남녀 싱글, 아이스댄스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며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팀 이벤트에 나선다.

초창기 컴펠서리 스케이팅과 프리스케이팅으로 구분했던 피겨는 경기 시간과 인기 등을 고려해 현재의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으로 자리 잡았다. 아이스댄스는 리듬댄스와 프리댄스로 구분한다.

남녀 싱글 연기 시간은 쇼트프로그램 2분 40초, 프리스케이팅은 4분이다. 10초 가깝게 허용된다. 남녀 싱글의 경우 쇼트 프로그램에서 제한 시간 안에 점프 3개, 스핀 3개, 스텝 1개 등 7가지 필수요소를 수행해야 한다. 점프 3개 중엔 악셀 점프와 콤비네이션 점프를 꼭 넣어야 한다.

프리스케이팅에서는 1개의 악셀 점프를 포함해 최대 7개의 점프 요소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스핀 최대 3개, 스텝 스핀 1개, 코레이션스 1개까지 총 12가지 요소를 선보여야 한다. 페어에 나서는 남녀 선수는 조화를 이루며 스케이팅을 해야 한다. 두 파트너가 항상 같은 동작을 연기할 필요는 없으나, 구성과 스케이팅이 일치한다는 인상은 줘야 한다.

페어에는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들어 올리는 리프트나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점프하는 스로 점프 등이 포함돼 피겨 종목 중 가장 역동적인 기술이 펼쳐진다.

아이스댄스는 남녀 선수가 함께 연기를 한다는 점에서 페어와 비슷하지만, 점프 요소보다 리듬, 스텝, 연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리프트 동작에서도 파트너를 어깨높이 위로 들어 올리거나, 두 선수가 두 팔을 뻗은 길이 이상 떨어지는 것은 제한된다.

피겨에서 구사하는 점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스케이팅 날 앞의 톱니인 '토(toe)'를 빙판에 찍으며 뛰어오르는 '토 점프'(토루프·러츠·플립)와 스케이팅 날 양면을 활용해 도약하는 '에지(edge) 점프'(악셀·루프·살코)로 나뉜다. 반 바퀴를 더 도는 악셀 점프가 기본점이 가장 높다.

아울러 스케이팅 제작 및 훈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4회전, 퀴드러플 점프의 시대가 도래했다.

남자 싱글의 경우 미국의 간판선수 일리아 말리닌이 피겨 역사상 최초로 퀴드러플 악셀을 성공시키는 등, 메달권에 진입하기 위해선 복수의 4회전 점프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여자 싱글에서도 러시아 선수를 중심으로 퀴드러플 바람이 불었다. 경쟁이 심해지자 지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를 두고 초유의 도핑 파문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피겨 불모지나 다름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김연아라는 슈퍼스타가 등장하면서 겨울 인기 스포츠로 떠올랐다.

이후 현재까지도 '연아 키즈'들이 속속 등장하며 한국 피겨는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엔 한국 선수 6명(5팀)이 출전한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신지아(세화여고)가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80회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여자 시니어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한국 남자 피겨의 간판 차준환(서울시청)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현겸(고려대)이 남자 싱글에, 새로운 '피겨 요정' 신지아(세화여고)와 2023 세계선수권 은메달리스트 이해인(고려대)은 여자 싱글에 나선다. 아이스댄스엔 임해나·권에(이상 경기일반) 조가 출전한다.

단체전 경기는 올림픽 개막 당일인 2월 6일부터 사흘간 치러진다. 임해나·권에 조가 가장 먼저 출격한다.

이어 2월 10일과 12일에는 각각 아이스댄스 리듬댄스, 프리댄스가 펼쳐진다.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 20분께 시작한다.

차준환과 김현겸이 나서는 남자 싱글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겸한 제80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쇼트 프로그램 경기에서 이해인 선수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은 각각 11월과 14일 오전에, 신지아와 이해인이 출전하는 여자 싱글 경기는 각각 18일과 20일 오전에 열린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윌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공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종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세종 GS건설
세종 (주)한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서울시청)이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80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남자 시니어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마치고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피겨 차준환, 아시아 넘어 세계 홀린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싱글 간판 차준환(24·서울시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첫 포디움에 도전한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 통산 3번째 동계올림픽을 밟는 차준환은 어린 시절부터 피겨 신동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 트리플(3회전) 점프 5종(살코·토루프·루프·플립·러츠)을 모두 성공할 만큼 잠재력이 풍부했고, 수많은 '김연아 키즈' 가운데에서도 단연 으뜸이었다.

차준환은 2016~2017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한국 남자 싱글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수확했다.

첫 동계올림픽이었던 2018 평창 대회에선 한국 남자 역대 최고 순위인 15위에 오르며 기대에 부응했다.

이후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세계선수권대회 톱10, 4대륙선수권대회 금메달을 기록했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5위를 차지해 한국 남자 싱글 최고 순위를 스스로 갈아치웠다.

지난해 2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안 게임에선 쇼트프로그램 94.09점과 프리스케이팅 187.60점으로 총점 281.69점을 기록, 한국 남자 선수로 처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에도 4대륙선수권 은메달과 세계선수권 7위 등을 달성했고, 지난 4일 제80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10연패와 함께 밀라노행을 확정했다.

종합선수권대회 직후 차준환은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제겐 꿈의 순간이다. 베이징 이후 밀라노 대회까지 출전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 계속 부침이

있었고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계속 노력해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남은 시간 더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점프는 거의 다 복구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체력적인 부분이다. 아무래도 지난 두 달 동안 훈련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계속 연습해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년 새로운 역사를 쓰며 한국 남자 피겨의 개척자 역할을 해낸 차준환의 다음 목표는 올림픽 메달이다.

차준환은 지난 7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서 참석해 "마음만큼은 첫 올림픽인 평창 대회처럼 여전히 가슴이 뛰고 기대되고 설렌다. 열정적으로 온 마음 다해 타고 오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뉴시스